

심장병원 의료진, 아시아 최초 NEJM 9번째 논문 게재



영국 런던에서 열린 유럽심장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남기병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 의료진이 아시아 최초로 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총 9편의 논문

을 게재하며 글로벌 임상·연구의 높은 수준을 증명했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남기병·박덕우·조민수·강도윤 교수팀은 심방세동과 관상동맥질환을 함께 갖고 있는 환자에게 심방세동 치료제만 복용하게 한 결과, 관상동맥질환 치료제와 심방세동 치료제 모두 복용한 집단에 비해 1년 뒤 사망·뇌졸중·심근경색·출혈 등 주요 임상사건 발생률이 크게 감소해 더욱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연구는 지난 9월 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심장 분야 최고 권위 학회인 '유럽심장학회 연례학술대회(ESC Congress 2024)'의 메인 세션 '하라인'에서 발표됐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 의료진은 2003년 국내 최초로 NEJM에 논문을 게재한 이후 총 9편의 논문을 게재하며 전 세계 임상 의사들의 진료와 치료 지침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제12회 염증성 장질환 심포지엄 개최



제12회 염증성 장질환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2회 염증성 장질환 심포지엄이 8월 25일 서울아산병원 동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염증성 장질환 진료 중 실제 마주할 수 있는 경장영양 치료에 대해 사례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진료 중 마주할 수 있는 철분, 미량영양소와 비타민의 처방법 ▲임상에서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Treat-to-Target 전략 ▲류마티스 질환과 염증성 장질환의 약제 선택 차이점 등 실제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 실시



8월 29일 주차동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이 8월 29일 서울아산병원 주차동에서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원내 화재 발생 시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서울아산병원 재난대책소위원회 위원과 보안관리팀, 시설팀 등 유관부서 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화재의 특징과 소화법 소개, 전기차 화재 초기 대응 방법 시연 등이 진행됐다. 